

어선 사고 대응 상황 긴급 점검하고, 재발 방지 방안 논의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어선 사고 대응 긴급 점검 회의 개최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최근 연이은 어선 사고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2월 14일(금)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강 장관은 최근 발생한 어선 사고 관련 보고를 받고, 안전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한 토론을 주재하였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최근 연이어 발생한 어선 사고는 기존 어선 안전 시스템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경고신호라고 생각한다.”라며, “기후변화, 선원 고령화 등 변화하는 어업환경을 고려해 사고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간의 어선 안전대책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어선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 주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5월 ▲조업 관리 강화 ▲사고 대응 역량개선 ▲안전한 어선 건조 등을 내용으로 한 ‘어선안전대책’을 발표하고 추진 과제를 이행하고 있다.

또한, 최근 발생한 어선 전복, 침몰, 화재 사고 등에 대해 「해양사고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위기단계를 발령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하며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담당 부서	어업자원정책관	책임자	과 장	임태호
	어선안전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강은